

‘실증도시’ 광주로 AI기업들 몰려온다

데이터·헬스케어·플랫폼 등 8개 기업과 협약 체결 기술개발·사업화 추진 등 AI 산업생태계 조성 협력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열풍을 타고 ‘대한민국 AI 대표도시’ 광주로 데이터·헬스케어·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AI대표 기업이 몰려 오고 있다. 광주시는 25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메타 빌드, 로제타텍, 윈더플랫폼, 한국버스방송, 아이메디신, 가온플랫폼, 칠로엔, 엔엑스 등 8개 인공지능 기업들과 175-182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 참석 기업들은 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을 통해 인공지능 전문분야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고, 광주 AI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광주 인공지능 전문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추진, 기술·정책 자문 등 수행 ▲인공지능 전문분야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 ▲인공지능(AI)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기업 홍보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이다.

기업 대표들은 “인공지능 솔루션이나 제품 등을 개발해 활용하거나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은 대한민국에서 광주가 유일하고, 기업에게 너무 소중한 환경”이라며 “특히 광주는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와 인재가 있고 실증을 할 수 있는 등 산업연도 잘 연결돼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내 유일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서비스 개시로 1000여 개의 인공지능(AI) 기업지원 준비를 마쳤다. 올해 말에 실증·창업동, 초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1단계 사업이 완성되면 광주는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AI) 기반시설(인프라)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게 된다”며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 도시규모 실증환경 등을 통해 광주를 찾은 기업들이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광주시와 협약한 메타빌드(주)는 AI·데이터연계 전문기업으로, 4000여 기間に 인공지능(AI) 플랫폼, 연계 미들웨어,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공급하며 공공부문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

이다. ㈜로제타텍은 소방산업 무선 시대를 개척해온 사물인터넷(IoT)기업이며, 재난 전문 AI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윈더플랫폼은 인공지능 케어 제공용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 중인데,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는 ‘시니어 케어’ 인공지능(AI)로봇 활용 독거노인 관리 및 1인 세대를 위한 안전·건강관리 등이 있다. 한국버스방송(주)은 서울 시내버스에 다양한 광고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얏타비(Yap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노하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미디어 매체 영역으로 확대 중이다. ㈜아이메디신은 글로벌 뇌 건강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뇌 기반 멘탈헬스케어 전문기업이며, 가온플랫폼은 사물인터넷(IoT) 연속센서 데이터와 보안용카메라(CCTV) 영상 데이터를 AI 알고리즘과 융합하는 지능형 예측진단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칠로엔은 자체 제작 AI 모델과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음악 비전문가를 위한 인공지능 배경음악 생성 서비스 ‘키앗’을 운영하는 창업기업이며, ㈜엔엑스는 주력 서비스인 ‘엔브릭스(enbrix)’를 통해 건물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지속 가능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선거인 명부 확인 꼼꼼하게” 25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노희용 전 동구청장 내정

광주시, 인사청문회 거쳐 최종 임명
광주시는 “광주문화재단 제5대 대표이사에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을 내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2일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최

종 2명을 추천 받아 후보자 적격 여부를 검토했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을 적임자로 낙점했다. 노 내정자는 지방고시 1회로 공직 입문한 뒤 광주 시 사회복지과장, 문화수도정책관, 공보관, 문화관광정책실장을 거쳐 민선 5~6기 광주 동구청

장 등을 지냈다. 노 내정자는 문화예술행정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공공조직 경영능력 및 경험 등이 풍부해 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오는 4월 5일 광주시의회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고, 23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국외 선원·체류 국민도 투표권 행사 가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한 걸음 더’

〈3〉 너도 투표할 수 있어
-선상투표·재외선거 편-

◇선상투표 기간·절차=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해외취업선·원양어선·외항여객선·외항화물선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할 수 있다. 사전 신청 후 22대 총선(4월10일) 전인 4월2일부터 5일 사이 선장이 정한 날에 투표할 수 있다. 구·시·군선거위는 선상 투표용지를 작성 후 해당 선상 투표자가 탄 선박의 선장에게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시밀리로 이용해 전송한다. 선상 투표용지는 표지 부분과 투표 부분을 구분해 작성한다. 표지 부분에는 선거인 확인란과 해당 선거구의 정당·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선상투표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선장은 선상투표용지를 받으면 즉시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용지를 쥐어 준다. 선상투표자는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임회인 및 본인 서명을 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해 주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한다. 시·도선관위는 받은 선상투표지의 투표 부분을 잘라 봉투에 넣고 표지 부분은 그 봉투에 붙여 봉합한 후 선상투표자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 위 우편으로 보낸다. 구·시·군선거위는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시·도선관위로부터 송부된 선상투표지를 접수해 우편투표함에 넣는다. 투표지 원본은 봉투에 넣어 봉합하고 선장에게 제출한다. 선장은 선상투표를 마친 때 선상투표 관리기록부를 작성해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팩시밀리로 전송해야 한다. 또는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선상투표 관리기록부와 봉투에 넣고 봉합한 투표지 원본 등을 관할 시·도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 도착하기 전 외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해 제출해도 된다. 선상투표기간 전에 귀국한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는 불가능하다. 선상투표 투표지는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접수해 우편투표함에 보관, 투표 마감 시각 후 개표소로 운반해 개표소와 함께 개표한다. ◇재외선거 방법·기간=재외선거는 대통령선거,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후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와 있는 이는 이번 총선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자동 등재되므로 별도 신청 없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책임위원 등은 매일 재외투표 마감 후 또는 재외투표소 운영 기간 종료 후 재외투표를 포장·봉인해 재외투표 관리관에게 인계해야 한다. 재외투표 관리관은 재외투표 기간 만료일 후 외교행낭을 통해 지체 없이 국내로 회송한다. 외교부장관은 외교행낭의 봉합·봉인 상태 확인 후 중앙선관위에 인계하고, 중앙선관위는 관할 구·시·군선거관위에 우편으로 송부한다.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구·시·군선거관위에 접수된 투표지는 우편투표함에 보관, 투표마감 시각 후 개표소로 운반해 개표한다.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위에 도착할 수 없을 때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재외선관위에서 개표할 수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전남도, 친환경농업 기반 유지·보전 앞장

75억원 투입...4월 30일까지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접수

전남도는 친환경 농업 기반의 유지·보전을 위해 올해 7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은 정부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유기농은 6년차부터 50% 감액되고, 무농약은 4년차부터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전남도가 2015년부터 자체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다. 유기농은 6년차부터 50%를 더해 100%, 무농약은 4년차부터 50%를 기간 제한 없이 지방비(전남도 20%·시군 80%)로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수령한 농지 가운데,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사업 기간 친환경농

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아야 한다.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해당 농지는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한도는 농가당 5ha다. 지급단가는 인증단계 및 품목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 면적에 비례해 지급한다. 논이 경우 ha당 유기 35만원, 무농약 25만원이다. 과수의 경우 유기 70만원, 무농약 60만원을 지급하며, 채소·기타 밭작물은 유기 65만원, 무농약 55만원을 지급한다. 단 무농약 벼의 경우 유기 전환 필지만 지원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한국의 16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세계유산도시 남원





남원시